여래장 안에서는 번뇌의 역할 없어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㉓ 번뇌의 장애를 떠나지 않은 여래장

"이처럼 네 가지 지음이 없는 거룩한 진리의 뜻은 오직 여래 · 응 · 등정각만이 일이 끝나는 것이고, 아라한 · 벽지불은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하 · 중 · 상의 법으로는 열반을 얻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것은 여래 · 응 · 등정각께서는 지음이 없는 네 가지 진리의 뜻에서 일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여래 · 응 · 등정각은 미래의 온갖 고(苦)를 알고, 온갖 번뇌와 상번뇌가 거둬들인 일체의 집(集)을 끊고, 일체 의생신(意生身)을 멸하고, 일체의 고통이 멸한 경지를 깨달아 얻은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여, 법을 파괴함으로 해서 고가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시작이 없고 지음이 없고 일어남이 없고 다함이 없다는 것이니, 다함을 여의고 항상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제 성품이 깨끗하여 일체 번뇌의 장애(煩惱藏)를 여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여의지도 않고 해탈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 항하의 모래알보다 많은 불법(佛法)을 성취한 것을 여래의 법신이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래의 법신은 번뇌의 장애를 떠나지 않은 여래장(如來藏)이라고 합니다."

법신이 번뇌를 떠나지 못하고 더불어 있는 상태가 여래장이다. 따라서 여래장이란 말은 번뇌에 덮여 있는 중생이 본래의 불성은 그대로 갖고 있음으로 여래를 내장해 있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법신을 성취하면 이 여래장이 법신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다 중생이다 할 것이 없이 모든 장애를 벗어나므로 여기에서는 해탈이라 할 것도 없는 불가사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음이 없는 네 가지 거룩한 진리(無作四聖諦)를 증득한 부처님의 경계가 이승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다.

중생이 비록 번뇌를 가지고 있지만 여래장(如來藏)은 본래 번뇌의 창고(煩惱藏)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생을 번뇌의 존재로 보지만 번뇌는 본래 공하여 여래장 안에서는 번뇌의 역할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래장을 공(空)의 뜻으로 보아 공여래장(空如來藏)이라 한다. 물론 여래장이 한량없고 불가사의한 불법을 갖추고 있다는 면에서는 불공여래장(不空如來藏)이라고 한다.

보통, 번뇌를 극복하는 것을 수행이라 한다. 수행에는 번뇌의 장애가 있다. 몸과 마음을 교란시키는 것이 번뇌다. 이 번뇌로 말미암아 선정에 들어가지 못하며 본래의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한다. 이 번뇌가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을 만들어 '나'에 집착하는 것이 아집이다. 변계소집성이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말한다. 길가에 떨어진 새끼토막을 뱀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다. 번뇌장이 끊어질 때 아집(我執)이 없어진다고 한다. 또 하나의 장애로 소지장(所知障) 있는데 이는 아는 것이 장애가 된다는 뜻이다. 올바른 견해가 아닌 알음알이로 분별을 일삼아 정견(正見)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 무지의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다. 소지장 때문에 법집(法執)을 일으킨다고 한다. 따라서 소지장을 끊으면 법집이 없어진다.

또 〈원각경〉에서는 두 가지 장애를 이장(理障), 사장(事障)이라 하였다. 이장(理障)이란 〈승만경〉에서 말하는 번뇌의 장애처럼 바른 앎(正知)과 바른 견해(正見)을 막아 본각진여를 보는 것을 장애하기 때문에 이장이라 하였다. 사장(事障)은 탐(貪), 진(瞋), 치(痴), 만(慢), 의(疑) 등의 번뇌 때문에 생사의 세계에 끊임없이 윤회하여 열반에 이르는 것을 장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번뇌의 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승만경〉의 이 대목에서는 여래장은 번뇌의 장애를 떠나지 않는다 하여 번뇌 속에서도 여래장은 여래장일 뿐이며 이것이 여래의 법신이라 하였다. 번뇌의 장애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번뇌가 있어도 여래장 자체가 오염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마치 금이 불순물과 섞인 광석 속에 있어도 순금의 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여래장 사상의 핵심 이야기는 여래장이 중생이 생사에 윤회하는 원인이 되지만 동시에 열반의 원인이 되므로 중생의 가치를 열반 쪽에서 보는 관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불보살님에 대한 깊은 신심부터…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㊻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1. 염불 수행의 종류

불자 여러분! 염불수행은 칭념염불(稱念念佛), 관상염불(觀想念佛), 법신염불(法身念佛), 실상염불(實相念佛)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칭명염불(稱名念佛)〉

부처님의 명호를 마음과 입으로 염하는 칭명염불(稱名念佛) 수행은 입으로 하는 구칭염불(口稱念佛)과 마음속으로 하는 묵념염불(默念念佛)이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구칭염불(口稱念佛)은 입으로 큰소리를 내어 우렁찬 목소리로 하는 '고성염불'과 작은 목소리로 하는 '저음염불'이 있습니다.

'고성염불(高聲念佛)'은 큰 목소리를 내어 우렁찬 목소리로 하는데 이때 소리가 단전으로부터 품어져 올라오는 힘으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는 염불입니다. 이와 같은 고성염불을 하게 되면 10가지의 공덕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첫째, 잠을 쫓는 공덕이 생기고, 둘째, 천마(天魔)가 두려워하고, 셋째, 염불하는 소리가 시방에 두루 퍼지는 공덕이 생겨나고. 넷째 삼악도 즉 지옥, 아귀 축생의 고통이 멈추는 공덕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다섯째, 염불할 때 염불 외에 잡음은 들려오지 않으며, 여섯째, 염불하는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되고, 일곱째, 용맹정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덟째, 모든 부처님이 기뻐하시며, 아홉째, 삼매가 현전하며, 열째, 서방정토에 왕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염불을 고성으로 하게 되면 공덕이 생겨나므로 큰 소리로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비해 '저음염불'은 크지도 작지도 않는 중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하는 염불입니다. 그렇지만 염불하는 목소리는 또렷해야 하고, 그 소리를 자신의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에 잡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때의 저음염불 역시 단전에서 올라오는 힘 있는 목소리로 작게 염불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는 '묵념염불(默念念佛)'에는 입술만 움직이며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거의 소리가 없을 정도로 남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하는 '금강염불'과 입술조차도 움직이지 않고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만 하는 염불이 있습니다.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만 하는 염불은 몸이 아플 때나 목욕할 때 그리고 식사 중이거나 화장실에서 용무를 볼 때 등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염불입니다.

〈염불 할 때의 마음가짐과 주의사항〉

불자 여러분! 염불수행을 할 때는 마음가짐을 단단히 정리하고 먼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깊은 신심(信心)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을 세우고 발보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세 번째 계를 범하지 않고 지키려는 마음을 갖고 염불수행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정심(定心)으로 염불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염불수행을 할 때 주의사항은 첫째, 먼저 염불하는 장소에 따라 소리를 달리해야 합니다. 둘째, 부처님을 염할 때는 그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해야 합니다. 셋째, 목탁이나 요령, 그리고 북을 치며 염불할 때는 그 소리의 박자에 잘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넷째, 염불할 때는 몸가짐을 청결히 하고 의관을 잘 갖추어야 하고 마음가짐 역시 잘 갖추어야 합니다. 다섯째, 염불할 때는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해야 합니다. 여섯째, 번뇌 망상이 일어나 마음이 혼탁하더라도 멈추지 말고 의지로 물리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염불수행을 해나가야 합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㉓ 뱀에 대한 비유의 경 ④

오온이 일으킨 생각에 속지 말아야

"진실 없이 공허하고 허망하게 거짓으로 중상하여 '수행자 고따마는 허무주의자이다. 살아있는 뭇 삶에게 단멸과 파멸과 허무를 가르친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행자나 성직자들이 진실 없이 공허하고 허망하게 거짓으로 중상하여 '수행자 고따마는 허무주의자다. 살아있는 뭇 삶에게 단멸과 파멸과 허무를 가르친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와 같이 설하는 자, 그와 같이 말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 가르친다."

'실체가 아닌 것을 실체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뭇 삶들은 바른 가르침을 허무주의라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허무주의의 기준은 오온 자체에 있다.

털 끝 만큼의 의심도 없이 오온이 주인이다 보니 오온을 나로 삼아, 오온의 존재성을 부정하면 허무주의라고 비난한다. 정작 자신이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실체가 아닌 것을 실체인 것으로 삼는 것이 완전한 허무주의에 빠진 것인데, 자신으로 삼는 그 의식이 전도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아는 것이 어렵다. 지식이 얼마나 전도되어 있는지를 참구하여 밝히려 하지 않고, 그들은 세상과 물질의 영원성과 옳음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에 대한 진실성이 실재한다고 생각한다. 전승된 지식을 진실처럼 믿는다. 그 믿음의 출발에 오류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의심하지 않으니 바르게 성찰하지 못하는 것이다. 진실은 나타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가질 수도 없다. 이것이 첫 출발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나타나는 것에서 찾고, 볼 수 있는 것에서 찾고, 가질 수 있는 것에서 찾는다면, 영원히 진실을 모르게 된다. 진실을 알고 찾는다고 말하겠지만, 정작 오온의 잔꾀에 속는 것일 뿐이다.

오온은 생각을 일으켜 앞으로만 달려가게 하고 뒤를 돌아보지 못하게 한다. '뒤'라는 곳은 내가 걸어온 곳이고, 이미 아는 것이라 볼 필요가 없다고 부추긴다. 뒤를 돌아보기만 하면 그곳은 암흑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는데 말이다.

오온은 알 길 없는 '앞'만을 보며 하염없이 걷게 만들고, 회광반조(回光返照)의 사유를 하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고통과 즐거움을 일어나게 한다. 그칠 줄 모르는 즐거움과 괴로움의 반복은 생명에게 고통이라는 벽을 만들어 그것을 뛰어넘는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성취감에 빠져버리면 '실체가 아닌 것을 실체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말의 뜻을 알기가 참으로 어려워진다.

'처음'은 완전함, 그 자체였다. 다시 완전하다는 것, 존재하지 못하는 줄 알아 찾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즉(卽)하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이 다 드러나 버린다. 그러면 '괴로움이 없다'는 앎이 생기고, '괴로움의 소멸도 없음'을 알게 되어 '괴로움의 소멸'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몸의 변화나 마음의 조작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처음의 완전함을 보지 못하고 헤매게 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반야심경〉의 '색불이공(色不異空) 공불이색(空不異色)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란 구절도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고 직역해버리면 아무리 읽어봐야 소용이 없다. 뜻을 풀어서 '모든 모양 완전함을 벗어난 적 없고, 완전함은 모든 모양을 떠나 나타난 적 없으며, 모든 모양 그대로가 완전함이고, 완전함 그대로가 모든 모양이네.'라고 새겨야 한다. '모양은 실체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므로 완전함을 갖는 것이다.'라고 바로 알아야 한다.

물질은 나의 것 아니고 나의 마음 아닌데
물질을 나의 것이라 하고 나의 마음이라 하여 괴로움이 생겨나네
물질은 나의 것 아니고 나의 마음 아니라 하면
물질로 생기는 괴로움 없으니 벗어나려는 마음 소멸하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먹는 법
한 포씩 500ml물에 타서 수시로 나누어 마신다
나만의 요리에 조금 뿌려 먹는다
컵에 조금씩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 차처럼 나누어 마신다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